



까사 에르멜린다 프리타스

까사 에르멜린다 프리타스는 1920년 더닐드 프리타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와인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녀가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와인을 브랜드 없이 판매했지만 1997년 이후로 브랜드 와인을 만들게 된다. 현재 440ha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완벽하게 갖춰 전통 방식과 현대식 기술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1

1. Casa Ermelinda Freitas Alicante Bouschet Reserva

불투명한 가넷 색이다. 잘 익은 과일 향과 알리칸트 부셰의 전형적인 꽃 향이 난다. 벨벳처럼 촉촉한 질감과 탄닌이 어우러져 미각은 물론 후각까지 만족시킨다. 진한 치즈, 푸아그라와 함께 마시길 추천한다.



2

2. Casa Ermelinda Freitas Sauvignon Blanc & Verdelho

15도의 스테인리스 통에서 발효된 화이트 와인이다. 강렬한 향기, 열대 과일 향, 나무와 잘 어우러지는 꽃의 향이 신선하게 올라온다. 산도가 좋고 우아해서 긴 여운을 준다. 생선요리나 신선한 샐러드와 잘 어울린다.

국내 시장에서 만나고 싶은 KWC 2020 수상 미수입 와인 IV

지난달에 이어 KWC 2020에서 수상한 미수입 와인을 소개한다.
선보이는 와인이 국내에 수입되어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길 바란다. 글 임주희 사진 장영수



비노블 가브리엘 & 코

1904년 가브리엘 브루네토(Gabriel Bruneteau)는 프랑스 보르도의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생 오뱅 드 블레(Saint Aubin de Blaye)에서 포도밭을 발견한다. 와인에 대한 열정으로 1921년 첫 와인 생산을 하게 된다. 와이너리가 점차 무역 회사로 성장하며 오늘날 많은 상을 받는 와이너리가 되었다.



1

1. Vignobles Gabriel & Co Puisseguin St. Émilion

메를로 90%, 까베르네 프랑 10%를 블렌딩했다. 그리고 잘 제어된 추출로 인해 색상이 매우 강렬하다. 훌륭한 단맛과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소고기, 양고기와 같은 스테이크와 어우러졌을 때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2

2. Vignobles Gabriel & Co Castillon Côtes de Bordeaux

메를로 90%, 까베르네 프랑 10%를 블렌딩했다. 발효 과정에서 25도를 유지하며 추출한다. 카라멜과 바닐라, 강렬한 과실 향이 섞여 강하고 힘 있는 향기로 다가온다. 로스트 치킨이나 터키 등과 잘 어울린다.



그라피냐

1870년 아르헨티나 산 후안에 첫 포도원을 설립해 올해로 150년의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다. 1885년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 철도 확장을 주도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브랜드 와인을 판매하게 되었다. 그라피냐의 우수성과 혁신적인 정신은 와인 생산자에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

1. Graffigna Core Malbec

풍부한 탄닌과 신선한 산미가 균형 잡힌 와인이다. 붉은 과일과 달콤한 향신료 향이 느껴진다. 참나무통에서 숙성되어 깊은 향기와 풍미가 뛰어나다. 양고기, 스테이크, 매운 음식, 닭고기 등 어느 곳에도 잘 어울리는 와인이다.



앤드류 피스 와인

1995년 첫 빈티지를 생산한 이후로 3대에 걸쳐 이어진 피스 가문의 와이너리다.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와이너리가 가족을 모이게 했고 더 나아가 호주에서 규모가 있는 가족 소유의 와이너리 중 한 곳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빅토리아주 머레이 강둑에 위치해 영양이 풍부한 토양을 이루며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

1. Andrew Peace Wines Full Moon Durif

어느 여름밤, 와이너리에 거대하고 낮게 떠 있는 달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명한 와인이다. 진하고 깊은 붉은빛을 띠고 있으며 다크 체리와 자두, 뽕나무 향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 향신료로 화이트 페퍼를 사용해 예상치 못한 스파이시를 느낄 수 있다.

Unforgettable Blending Wine



Murrieta's Well 'The Spur' 2017
유리에타스 웰 '더 스퍼' 2017



샤또 플라냐크

샤또 플라냐크는 로랑 고지(Laurent Gauzi)와 로맹 루(Romain Roux)가 함께 설립한 와이너리다. 약사를 준비하던 로랑은 와인의 매력에 빠진 후로 양조학자의 길을 걷다 와인 가문의 로맹과 인연이 닿아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된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아로마가 풍부하고 잘 숙성된 포도를 수확해 좋은 와인을 만든다.



1

1. Château Plagnac

점토질 토양에서 자란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을 블렌딩한 와인이다. 향이 좋은 카시스, 체리, 흙의 향과 단단한 탄닌이 함께 어우러져 균형이 잘 잡혀있다. 치즈 및 그릴에 구운 육류와 함께하면 좋다.



콘차 이 토로

콘차 이 토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와인 생산 및 수출업체이자 세계 10대 와인 회사 중 한 곳이다. 1883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고 칠레 와인 산업의 성장을 주도한다. 2014년 역동적인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 센터를 열어 포도 재배 및 양조 분야에 관한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1. Diablo Black Cabernet Sauvignon

어둡고 짙은 붉은 색의 와인이다. 고급스러운 다크 초콜릿과 검붉은 과일향이 어우러져 복합미가 돋보인다. 매력적인 풍미가 깊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붉은 고기와 매운 음식에 잘 어울린다.



데일리 와인으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화이트 와인



Wente Morning Fog Chardonnay 2018
웬티 모닝 포그 샤도네이 2018